

# 고정희 연시의 창작 방식과 의미

- 『아름다운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문 혜 원\*

1. 머리말
2. 원작과 개작 비교를 통한 고정희 연시의 창작 방식과 기능
3. 연시 창작의 의미 - 공감의 확대와 타자성의 승인
4. 맺는말

## 〈국문초록〉

고정희의 시집 『아름다운 사람 하나』는 1990년 들꽃세상에서 출간된 시집으로서, 사랑과 관련된 시들만을 묶어놓은 연시집이다. 고정희는 이 시집을 스스로 ‘연시집’이라고 규정하고, 기존에 발표된 시들 중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수록하고 있다.

개작된 시들은 연작시 형태를 없애서 각 시들을 독립시키고, 부제를 시의 제목으로 하거나 제목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용이나 분량 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원래의 시가 가진 특정한 사회적 사건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간접화함으로써 시의 내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꾸고, 시의 전체 분량을 줄이고 일정한 형식과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시의 의미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게 한다.

---

\* 아주대학교 교수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시집은 개인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서 더 큰 사랑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당신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갈등하는 ‘나’와 무정하고 무심한 당신의 관계는 연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의 구도이다. 이 부분에서 독자는 화자의 비극에 공감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한다. 고백적인 형식 또한 독자가 화자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고정희의 연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서 오는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나’를 버리고 상대방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한 타자성을 승인하고, 각각 독립된 개인으로 마주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자연과의 공생, 사회적 연대 등 좀더 넓은 차원으로 확산되어간다.

이런 면에서 고정희의 연시는 개인의 갈등을 극복하고 승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줌과 동시에, 시인의 이념적 지향이 발전되고 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형상화한 시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고정희, 연시, 일반화, 공감, 독자의 접근성, 타자성

## 1. 머리말

고정희의 시집 『아름다운 사람 하나』는 1990년 출판사 들꽃세상에서 출간되었다.<sup>1)</sup>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시들 중 많은 시들이 이전 시집에 실

---

1) 『아름다운 사람 하나』는 들꽃세상 시집 2권으로 출간되었다. 들꽃세상 시집 1권은 『제 몸속에 살고 있는 새를 꺼내주세요: 문정희 연시집』, 3권은 『오월은 푸르거나 民自네 세상: 송제홍 정치풍자시집』, 4권은 『이슬맺힌 노래: 이시영 서정시집』이다. 이 중 1,2권이 1990년에 출간되었다. 따라서 이 시집은 고정희가 타계하기 이전에 기획되고 출간된 것으로서 고정희 자신의 의지와 구상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정희 사후에 지인들이 묶은 선시집으로 보는 것(이경희, 「고정희 연시 연구」, 『돈암어문학』 20, 2008, pp.220-221)은

렸던 시들을 재수록한 것이다. 수록된 시들은 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의도적으로 ‘연시집’의 성격을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 시집은 고정희의 시집 중에서도 이질적이며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sup>2)</sup>

시집의 특징을 연시집으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출판사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sup> 그러나 시집의 구성이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외부적인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시집을 ‘연시집’이라고 규정하고 수록된 시들을 ‘연시’라고 명명한 것은 고정희 자신이었다. 그녀는 ‘책 뒤에’<sup>4)</sup>에서 여기에 실린 시들을 ‘연시편’이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이것이 ‘모든 이의 고통과 슬픔을 승화시키는 노래가 되기를’ 그리고 자신이 ‘더 큰 사랑의 광야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고정희 자신이

---

잘못된 것이다.

- 2) 고정희의 연시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박혜경, 「연시와 통속성의 문제」, 『한길문학』 8, 1991.3 ; 김영혜, 「고독과 사랑, 해방에의 절규」, 『문예중앙』, 1991 가을호 ; 이명규, 「고정희 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논문, 2000 ; 정효구, 「고정희론-살림의 시, 불의 상상력」, 『현대시학』, 1991.10 ; 서석화, 「고정희 연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논문, 2003 ; 이경희, 「고정희 연시 연구」, 『돈암어문학』 20, 2008 등이 있다.
- 3) 들꽃세상은 송기원을 담당했던 전직 형사가 설립한 출판사였다. 이를 감안할 때, 고정희가 이 출판사에서 연시집을 출간하게 된 것은 출판사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한 송기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송제홍과 이시영이 ‘책 뒤에’에서 송기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 4) ‘책 뒤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시집,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 신뢰, 소망, 기쁨, 고통, 노여움, 그리고 사랑과 힘이 이 시집의 기록입니다. 시 편편 글자마다 나와 이 세계의 문으로 상징되는 당신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 편도 눈물없이 쓰여질 수 없었던 이 시편들, 그러나 사랑의 화두에 불과한 이 연시편이 모든 이의 고통과 슬픔을 승화시키는 노래가 되기를, 그리고 내가 더 큰 사랑의 광야에 이르는 길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이 글은 들꽃세상에서 출간된 『아름다운 사람 하나』에서는 ‘책 뒤에’라는 이름으로 시집 맨 뒤에 실려 있지만, 푸른 숲에서 발간한 시집에서는 ‘自敍’라는 이름으로 시집의 맨 앞에 놓여있다.

‘연시’라는 성격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과 이 시들에 나타나는 사랑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이 연시들에 나타나는 사랑을 방법론적인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사람 하나』의 구성에서도 증명된다. 목차를 보면 이 시집은 1.다시 무정한 이여, 2.쓸쓸한 날의 연가, 3.꿈꾸는 가을 노래, 4.하늘에 쓰네, 5.사랑의 광야에 내리는 눈, 6.따뜻한 동행 이라는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각 부의 제목은 사랑의 아픔과 상실(다시 무정한 이여, 쓸쓸한 날의 연가)을 그리다가 이것이 점차 극복되면서(꿈꾸는 가을 노래, 하늘에 쓰네) 더 큰 사랑의 형태(사랑의 광야에 내리는 눈, 따뜻한 동행)로 옮겨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사랑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 넓은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의 동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아름다운 사람 하나』에 실려 있는 시들이 재수록된 것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래의 시와 개작된 시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정희의 연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되었는지를 밝히고, 연시 창작이 고정희의 시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다.

## 2. 원작과 개작 비교를 통한 고정희 연시의 창작 방식과 기능

『아름다운 사람 하나』에는 특히 『지리산의 봄』에서 재수록된 시가 많다.<sup>5)</sup> 그 중에는 원래 발표된 시와 재수록된 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한 것도 있지만, 제목이 변경되거나 내용에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경우도 있다. 시인이 ‘연시’라는 성격을 표방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작된

---

5) 원래 시와 개작 시의 비교 표는 논문 마지막 부분에 제시했다.

시들은 ‘연시’라는 형식을 엄두에 두고 원래의 시를 수정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개작시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땅의 사람들’이나 ‘천둥벌거숭이노래’, ‘편지’, ‘프라하의 봄’ 등 원래 연작시에 속했던 시에서 연작의 제목을 없애고 부제를 제목으로 하거나 새로운 제목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작시에 포함됨으로써 해석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 한 편마다의 독립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땅의 사람들 5’, ‘땅의 사람들 7’, ‘천둥벌거숭이 노래 2’, ‘천둥벌거숭이노래 6’이 각각 ‘그대의 시간’, ‘지상의 양식’, ‘그대 음성’, ‘이별 노래’로 바뀌어 있다. 이 중 「지상의 양식」이나 「그대 음성」, 「이별 노래」는 제목만 바뀌었을 뿐 연작이었던 원래의 시와 내용상의 차이가 없고 의미의 변화 또한 거의 없다. 다음은 제목이 바뀌면서 의미에 변화가 있거나 내용이나 형태에 변화를 보이는 경우이다.

#### (1) 의미의 확장을 통한 일반화

##### 「땅의 사람들 5 - 떠도는 자유에게」<sup>6)</sup> (『지리산의 봄』)

한시에는 신새벽 건너오는 바람이더니

세시에는 적막을 뒤흔드는 대숲이더니

다섯시에는 만년설봉 타오르는 햇님이더니

일곱시에는 강물 위에 어리는 들판이더니

아홉시에는 길따라 손잡는 마을이더니

---

6) 일반적으로 시를 감상할 때는 제목을 먼저 보고 그에 따라 시의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인용한 두 시는 제목에 따라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인용문에서 제목을 먼저 제시했다.

열한시에는 첫눈 내린 날의 석탄불이더니  
 열세시에는 더운 눈물 따라붓는 술잔이더니  
 열다섯시에는 기다림 끌고 가는 썰물이더니  
 열일곱시에는 깃발 끝에 걸리는 노을이더니  
 열아홉시에는 어둠 속에 떠오르는 둥근 달빛이더니  
 스물한시에는 불바다로 달려오는 만경창파이더니  
 스물세시에는 빛으로 누빈 솜옷이더니  
 스물다섯시에는 따뜻하고 따뜻하고 따뜻한 먼 나라에서<sup>7)</sup>  
 아름다운 사람 하나 잠들고 있다

「그대의 시간」 (『아름다운 사람 하나』)

한시에는 신새벽 건너오는 바람이더니  
 세시에는 적막을 뒤흔드는 대숲이더니  
 다섯시에는 만년설봉 타오르는 햇님이더니  
 일곱시에는 강물 위에 어리는 들판이더니  
 아홉시에는 길따라 손잡는 마을이더니  
 열한시에는 첫눈 내린 날의 석탄불이더니  
 열세시에는 더운 눈물 따라붓는 술잔이더니  
 열다섯시에는 기다림 끌고 가는 썰물이더니

---

7) 이하, 인용 시에서 원작과 개작 사이에 변화가 있는 부분은 사선으로, 삭제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한다.

열일곱시에는 깃발 끝에 걸리는 노을이더니

열아홉시에는 어둠 속에 떠오르는 둥근 달빛이더니

스물한시에는 불바다로 달려오는 만경창파이더니

스물세시에는 빛으로 누빈 솜옷이더니

스물다섯시에는 따뜻하고 따뜻하고

따뜻한 먼 나라에서

아름다운 사람 하나 잠들고 있다

인용된 「땅의 사람들 5- 떠도는 자유에게」와 「그대의 시간」은 제목이 바뀌면서 시의 의미 영역 또한 바뀐 경우이다. 마지막 부분의 행 나눔이 약간 달라졌지만 그것이 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으므로 두 시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원래 시 「땅의 사람들 5 - 떠도는 자유에게」의 제목에는 ‘그대’라는 말이 없고 부제로 ‘떠도는 자유에게’라는 말이 붙어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 시의 ‘아름다운 사람’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각(時刻)에 따라 제시된 ‘바람’, ‘대숲’, ‘햇님’, ‘들판’ 등 다양한 상관물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간 혹은 행위들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쟁의 시간과 행위들이 축적되어 ‘아름다운 사람’이 ‘따뜻하고 따뜻하고 따뜻한 먼 나라’에서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을 ‘자유’라고 한다면, 그가 잠드는 ‘따뜻한 먼 나라’와 ‘스물다섯시’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유토피아적인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시간」을 원래의 시와 독립된 시로 읽으면, 이 시는 ‘그대’에 대한 개인적인 사랑을 노래한 시로 읽힌다. ‘그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고려하면, 시각마다 달라지는 형상(바람, 대숲, 햇님 등)은 화자의 심적 정황이나 생각의 흐름에 따라 느껴지는 ‘그대’의 주관적인 인상들

이다.<sup>8)</sup> 즉 ‘그대’는 신새벽을 건너오는 바람과 같은가 하면 적막을 뒤흔드는 대숲과 같고, 만년설봉에 타오르는 햇님과 같은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을 ‘그대’와 동일시해서 읽어도 큰 무리가 없다. ‘스물다섯시’라는 시계 외의 시각은 그대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따뜻한 먼 나라’는 그대가 있다고 추정되는 공간인 동시에 화자가 바라보는 ‘그대’의 성질(따뜻한 먼나라와도 같은)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수식어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의 의미 영역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원래의 시는 자유를 향한 갈망을 담은 것이지만, 제목을 연시 형태로 바꾸면서 개인적인 연시로도 읽힐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의 원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새벽 건너오는 바람”, “적막을 뒤흔드는 대숲”, “불바다 달려가는 만경창파”, “빛으로 누빈 솜옷”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 혹은 ‘그대’가 단순히 개인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을 거느리고 있음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맥락으로 읽으면 “신새벽 건너오는 바람”, “적막을 뒤흔드는 대숲”, “불바다 달려가는 만경창파”, “빛으로 누빈 솜옷” 등은 ‘아름다운 사람’의 행적을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땅의 사람들’이나 ‘자유’라고 했을 때 이 시의 내용은 이처럼 사회적인 의미에 한정되지만, ‘그대의 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 개인적인 의미까지를 더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원래의 시가 개작되어 실린 경우이다.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원래의 시에서 부제를 빼고 제목만 남긴 경우인데 시의 내용

8) 이는 「지울 수 없는 얼굴」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시에서 당신은 화자의 정황에 따라 ‘냉정한 당신’, ‘얼음 같은 당신’이 되기도 하고 ‘부드러운 당신’, ‘따뜻한 당신’이 되기도 한다. 화자의 심리적 정황에 따라 ‘당신’의 속성이 규정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울 수 없는 얼굴」에서 ‘당신’은 상반되는 성질이 공존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반면 「그대의 시간」에서 ‘당신’은 긍정적인 속성만이 부각되어 있다. 「지울 수 없는 얼굴」이 화자의 주관적인 심리적 정황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그대의 시간」은 ‘그대’를 설명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요하여라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무심히 지나는 출근버스 속에서도  
추운 이들 곁에  
따뜻한 차 한 잔 끓는 것이 보이고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수 앞바다 오동도곶에서  
춘설 속의 적동백 두어 송이  
툭 터지는 소리 들리고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쓰라린 기억들  
강물에 떠서 아득히 흘러가고

울렁거려라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물구나무 서서 매달린 희망  
맑디맑은 눈물로 솟아오르고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리운 어머니  
수백 수천의 어머니 달려와  
곳곳에 잠복한 오월의 칼날  
새털복숭이로 휘어지는 소리 들리고

눈물겨워라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중국 산둥성에서 돌아온 제비들  
쓸쓸한 처마, 폐허의 처마 밑에  
자유의 등지

사랑의 등지

부드러운 혁명의 등지

하나 둘 트는 것이 보이고

-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편지 9」 (『지리산의 봄』)

고요하여라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무심히 지나는 출근버스 속에서도

추운 이들 곁에

따뜻한 차 한 잔 끓는 것이 보이고

울렁거려라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수 앞바다 오동도곶에서

춘설 속의 적동백 화드득

화드득 툭 터지는 소리 들리고

눈물겨워라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중국 산둥성에서 돌아온 제비들

쓸쓸한 처마, 폐허의 처마 밑에

자유의 등지

사랑의 등지

부드러운 혁명의 등지

하나 둘 트는 것이 보이고

-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아름다운 사람 하나』)

개작된 시는 원래의 시에 비해 길이가 훨씬 짧아졌고 내용 또한 많이 변화되어 있다. 원래 시에서는 ‘오월’이라는 단어가 표면에 드러나 있어서 이 시가 광주민주화항쟁과 연결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작된 시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1연의 ‘쓰라린 기억’이라는 구절도 삭제

함으로써 사회적인 사건과 상처를 간접화하고 있다. 3연에 ‘자유’, ‘혁명’ 등의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회 역사적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이 시는 특정한 사건과 사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유와 혁명을 기리는 것이 되어 보다 일반적인 의미망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특정한 경험 내용을 일반화함으로써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대중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시는 구체적인 연관성이 제거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추상성은 독자들의 공감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개작시가 특정한 사건 맥락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진술 형태를 취하는 것은 연시의 이같은 특징을 살린 것이다. 원래 시에서 ‘너’는 자유 혹은 타자에 대한 사랑, 희망 등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 분명하지만, 개작시에서 ‘너’는 개인적인 사랑의 대상인 연인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물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너’가 개인적인 사랑의 대상이면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독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

## (2) 선택과 반복을 통한 강조 효과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의 형태 변화는 의미망을 확대한다는 기능 외에 선택과 반복이라는 연시 고유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개작시는 원래의 시 1,2연에서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이 반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각 연의 앞부분에 “~하여라/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라는 구절을 동일하게 한 번씩만 배치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내용이 단순해지는 대신 시의 인상은 한결 선명해진다. 또한 “~하여라/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이라는 부분이 반복되면서 암송하기에 쉬운 형태가 되고 감상을 용이하게 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독자의 접근성은 훨씬 높아진다.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역시 부제를 삭제하고 제목만 남긴 경우로서 원래의 시에서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길을 가다가 불현듯  
가슴에 잉잉하게 차오르는 사람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목을 길게 뽑고  
두 눈을 깊게 뜨고  
저 가슴 밑바닥에 고여 있는 저음으로  
첼로를 켜며  
두 팔 가득 넘치는 외로움 너머로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너를 향한 기다림이 불이 되는 날  
나는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불 다 사그러질 때까지  
어두운 들과 산굽이 떠돌며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익혔다

네가 태양으로 떠오르는 아침이면  
나는 원목으로 언덕위에 쓰러져  
따스한 햇빛을 덮고 누웠고  
달력 속에서 뚝,뚝,  
꽃잎 떨어지는 날이면  
바람은 너의 숨결을 몰고와  
촉백의 어린 가지를 키웠다  
그만큼 어디선가 희망이 자라오르고  
무심히 저무는 시간 속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밤,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렸다  
수없는 나날이 셔터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꿈의 현상소에 당도 했을때

오오 그러나 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부재중이었다

달빛 아래서나 가로수 밑에서

불쑥불쑥 다가 왔다가

이내 바람으로 흩어지는 너,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 편지 10」 (『지리산의 봄』)

길을 가다가 불현듯

가슴에 잉잉하게 차오르는 사람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너를 향한 기다림이 불이 되는 날

나는 다시 바람으로 떠올라

그 불 다 사그러질 때까지

어두운 들과 산굽이 떠돌며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떠오르는 법을 익혔다

네가 태양으로 떠오르는 아침이면

나는 원목으로 언덕위에 쓰러져

따스한 햇빛을 덮고 누웠고

누군가 내 이름을 호명하는 밤이면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렸다

달빛 아래서나 가로수 밑에서

불쑥불쑥 다가왔다

이내 허공중에 흩어지는 너,

네가 그리우면 나는 또 올 것이다

-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아름다운 사람 하나』)

원래 시에서 삭제된 부분(밑줄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의 상황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나’가 어떻게 울었는지를 설명하거나(“목을 길게 뽑고~나는 울었다”), 너를 그리워하는 ‘나’의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설명함(“달력 속에서~시간 속에서”, “수없는 나날이~부재중이었다”)으로써 ‘나’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토로하는 부분이다. 개작시는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울음의 상황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네가 그리울 때 ‘나’가 한 행위들(울거나 바람으로 떠오르거나 원목으로 쓰러져 햇빛을 덮거나 사다리를 내리는 것들)은 나타나지만, 그것이 결국 ‘너’의 부재로 끝났거나 그 때문에 절망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개작 시에서 강조되는 것은 네가 그리워졌을 때 ‘나’가 하는 행위의 적극성이다. ‘나’는 너를 향한 기다림의 불을 스스로 잠재울 때까지 스스로 잠들고 일어서고 떠오르는 법을 익히고, ‘너’라는 태양을 받기 위해 원목이 되어 눕고, 빗장 밖으로 사다리를 내린다.

이러한 행위는 원래 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지만 행위의 시적인 의미는 다르다. 원래 시에서 그것들은 ‘너’를 향한 그리움의 시간들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만 의미를 지닌다. 즉 이러한 행위들을 하며 ‘너’를 기다리지만 ‘너’는 어느 곳에서도 부재중이었고 ‘나’는 다시 울게 되는 것이다. 원래의 시 3연에서 이러한 내용이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은 기다림의 행위와 좌절과 다시 기다림의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작시는 훨씬 안정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총 4연 중 1연과 4연이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는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수미상관의 형식을 취한 가운데, 2,3연에는 ‘너’를 그리워하는 ‘나’의 행위들이 나뉘어 배치되고 있다.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1연의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가 4연 마치

막 부분에서는 “네가 그리우면 나는 또 올 것이다”라는 형태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즉 상황의 수동적인 수용에서 적극적인 의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진술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화되는 근거는 2,3연에 있다. 개작시는 원래 시의 3연을 두 개의 연으로 나누고 설명 부분(“달력 속에서~시간 속에서”)과 부정적인 진술(“수없는 나날이~부재중이었다”)을 삭제한 후 3연에 ‘나’의 행위만을 배치하고 있다. 원래 시 3연에서는 ‘나’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너’가 부재함으로써 행위가 무위로 끝나버리지만, 개작시 3연에서는 행위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나’의 행위의 결과로 ‘너’가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그리움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나’의 행위 자체에 초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의 과정, 견딜 시간을 거쳐서 ‘나’는 스스로 그리움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4연의 ‘울음’은 그 결과물이다. 따라서 울음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올 것이다’라는 의지형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것은 너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는 방법론으로서 선택된 것이다.

‘~하면 ~한다’라는 형식은 이러한 발상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때 ‘~하면 ~한다’는 조건절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건과 결과는 필연적인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대를 만나고 돌아오다가/ 안양쫄에 와서 내가 꼭 올게 됩니다”(「다시 왼손가락으로 쓰는 편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운다’나 ‘안양쫄에 오면 올게 된다’는 필연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시인의 개인적인 습관 혹은 주관적인 인과 관계일 뿐이다.

그러나 독자들은 이러한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진술에 오히려 공감하는데, 그것은 독자가 시적 상황에 자신의 경우를 대입시키기 때문이다. 독자는 ‘그리우면’이라는 추상적인 조건에 자신의 상황을 대입시키고 스스로 ‘운다’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구체적인 그리움의 상황이나 사연, 대상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독자 자신의 특별한 내용으로 채우고 그 결과를 ‘운다’라는 시적 결론에 맞추는 것이다. 독자가 시인의 주관적

진술에 공감하는 것은 진술의 타당성 때문이 아니라 진술의 맥락 혹은 상황에 감염되기 때문이다.

이 시는 단정적인 진술 형식을 변화를 주어 반복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형태의 반복은 시의 내용을 단순화시키고 기억하기 쉽게 하여 독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인상적인 한 구절이 반복되면 독자들은 그 구절을 암송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 3. 연시 창작의 의미 - 공감의 확대와 타자성의 승인

이상에서는 고정희의 연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되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녀의 연시는 특정한 사건이나 감정을 삭제하여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함으로써 의미의 확장을 피하거나 고정된 형식을 변주 혹은 반복함으로써 기억하기 쉽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으로써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연시가 “모든 이의 고통과 슬픔을 승화시키는 노래가 되기를” 희망했던 고정희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 장에서는 연시 창작이 고정희 시 전체에서 볼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고정희의 시에서 사랑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것은 『이 시대의 아벨』(1983)부터이다. 그 이전에 출간된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1976), 『실락원 기행』(1981), 『초혼제』(1983) 등은 대부분 죽은 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 실린 시들은 개인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빙의한 무당의 목소리를 취하고 있다. 대상이 죽은 자일 때, 타자와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 양상이나 대응 방식이 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혼이나 추모, 기억 등의 행위는 살아 있는 자의 일방적인 행위이지 상호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해 사랑은 현실적인 삶에서의 관계이며 ‘나’와 타자와의 관계



가 전제된 상호적인 것이다. 그것은 남녀 간의 일상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동지에 혹은 자매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유에 대한 갈망 등 다양한 색깔의 감정들을 포함한다. 사회적인 상상력에 바탕한 시에서 사랑은 종종 당위적인 명제로 나타난다. 그것은 일방적인 헌신이나 믿음과 같이 자명한 것이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시인이 공공의 곡비(哭婢)임을 자처하거나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투사를 자처할 때, ‘나’는 타자와 동일시되며 그 대리인이 된다. 이 경우 타자와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고 사랑 또한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시인의 사적인 얼굴이 표출되는 시에서 실제적인 타자와의 관계는 종종 부담과 혼란을 안겨주는 원인이다.

그러나 친구여  
 기도회가 끝난 수유리의 새벽 네시,  
 우리의 얼굴엔  
 어제보다 더 짙은 피곤이 서리고  
 반짝이던 두 눈엔 고드름이 열린 채  
 어제와 다름없는 타인으로 악수했어

- 「서울 사랑- 말에 대하여」 (『이 시대의 아벨』) 부분

억압적인 사회와 부패한 현실을 비판하는 기도회에 참석해서 밤새 야행을 부르며 철야 기도회를 마친 후 돌아가는 길에서, 화자가 발견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어제와 다름없는 타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말과 분리된 ‘한무데기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 즉 내용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공허한 관계일 뿐이라는 깨달음이 화자를 절망스럽게 한다. 이 때 ‘우리’는 경험에서 얻어진 믿음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이념으로 모인 관념적인 집단일 뿐이다. 개인적인 얼굴이 진솔하게 드러나는 시에서 나타나는 시인의 자화상은 외롭고 쓸쓸하다.

가끔 복도에 낭랑하게 울리는  
 그 가족들의 윤기 흐르는 웃음 소리,  
 유독 굳건한 혈연으로 뭉쳐진 듯한  
 그 가족들의 아름다움에 밀려  
 초라하게 풀이 죽곤 했는데,  
 그 분이 배려해 준  
 영양분 가득한 밥상을 대하면서  
 속으로 가만가만 젖곤 했는데,  
 파출부도 돌아간 후에  
 그 집의 대문을 쾅, 닫고 언덕을 내려올 땐  
 이유 없이 쏟아지던 눈물.

혼자서 건너는 융융한 삼십대

- 「객지」(『이 시대의 아벨』) 부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지로 짐작되는 ‘그 분’의 집에서 화자가 느끼는  
 것은 고독감과 쓸쓸함이다. 같은 이념을 가진 동지이지만 가족이라는 관  
 계 앞에서 ‘나’는 홀로된 타인일 뿐이다. ‘그 분’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외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타자와 ‘나’사이에 놓여있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 소통의 단절 거기에서 오는 절망감과 고독 등은 종종  
 남녀 간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사람 하나』의 시들은 애증과 기다림, 그리움, 안타까움, 원망  
 등 전형적인 사랑의 감정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 ‘사랑’은 자유를 향한 열  
 망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민, 같은 이념을 가지고 함께 하는  
 동지에 대한 믿음과 같은 공적인 것(「쓸쓸함이 따뜻함에게」, 「봄비」, 「사  
 랑의 광야에 내리는 눈」 등)일 때도 있고, 남녀 간의 일상적인 사랑일 때도  
 있다(「지상의 양식」, 「그대 생각」 등). 남녀 간의 일상적인 사랑이 주제가  
 될 때, 그것은 여느 사람들의 것처럼 시인을 들뜨게 하고(「지상의 양식」),  
 상대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사랑법 여섯째」).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공적인지 사적인지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것은 ‘사랑’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에서 사랑은 ‘나’의 일방적인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그려진다. ‘나’가 당신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것과 달리 당신은 ‘나’의 사랑에 답하지 않는다.

이것은 연시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되는 것이다. 연시의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랑의 기쁨보다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아픔 등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무심한 당신 그림에도 불구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해 있는 ‘나’의 속절없는 그리움, 끝을 알 수 없는 맹목적인 기다림 등이 연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이다.

이는 연시가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화자인 ‘나’는 일단 사랑하는 대상과의 공감에 실패한다. ‘나’는 일편단심 대상(당신, 그대, 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무정하고 무심하다. 여기서 시적 화자의 비극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에 가슴 아파하는 화자를 바라보는 독자는 그 때문에 화자의 비극에 공감한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독자는 화자의 사랑의 아픔에 공감하며 스스로의 아픔을 위로받는다. 여기서 역설이 발생한다. 시적 화자(혹은 시인)가 고통스러울수록 그것을 읽는 독자는 위로받고 정화되는 것이다. 이 공감의 역설이야말로 연시가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인 셈이다.

또한 연시는 대부분 독백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욱 지고지순하고 헌신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독백은 당신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기도 하다.<sup>9)</sup> 연시가 대중적으로 널리 읽히는 것은 이러한

---

9) 서석화는 이러한 성격을 “화자의 모든 발화는 결국 화자 자신에게로 향하는 독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독백이야말로 사랑에 임하는 자신의 모습이

형식적 특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독백 형식은 시적 진술이 마치 독자 자신의 상황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독자는 시를 읽으면서 시적 화자의 독백을 되풀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는다.

고정희의 연시 또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당신과의 사랑을 갈망한다기보다는 당신을 향한 사랑을 견디는 ‘나’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랑을 달성하기 위해 ‘나’가 하는 행위는 편지를 쓰거나 혼자 그리워하거나 울거나 견디는 소극적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는 독백과도 같은 것이다. ‘나’는 항상 왼손가락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데(「아파서 몸져누운 날은」, 「왼손가락으로 쓰는 편지」, 「다시 왼손가락으로 쓰는 편지」), 그것은 공적인 오른손의 것이 아닌 사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처음부터 ‘나’의 사랑이 외로울 것임을 당연시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0)</sup> 즉 ‘나’는 사랑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화자는 당신과의 사랑을 일부러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기대 높이가 자라는 쪽으로 커다란 돌덩이 매달아놓습니다.

그대를 기애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하여 내 외롭 짓무른 밤일수록 제 설움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놓습니다

- 「사랑법 첫째」 전문

---

적나라하게 투영된 자기고백적 영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서석화, 「고정희 연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3, p.23.

- 10) 서석화 역시 ‘왼손가락’을 ‘가질 수 없는 꿈’, ‘불가능’, ‘소통 부재’, ‘기적을 바라는 서툰 꿈’ 등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다. -위의 글, p.24 참고.

이 시에는 당신과의 거리감이 사실은 화자에 의해 의도된 것임이 드러나 있다. ‘나’는 그대를 향한 기대가 높아질수록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자신을 갈무리한다. 기대가 높아질수록 그대를 향한 욕심이 커지고, 그것은 결국 그대를 그대 아닌 것으로 만들어서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가 경계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상대방을 억압하는 사랑의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속성이다. ‘나’는 사랑이 나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되지 않도록, 상대를 구속하는 폭력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고정희의 연시가 대중적인 다른 연시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연시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몰입한다. 대상과 ‘나’의 가치는 사랑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즉 그대를 사랑하면 할수록 ‘나’의 존재 가치는 점점 작아지고, ‘그대’는 더욱 고귀하고 높은 존재가 된다. 화자는 당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인내, 자기비하 등 소극적이고 자기부정적인 방식으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한다.<sup>11)</sup> 상대방에 대한 헌신과 자기비하는 자신의 사랑의 순결성과 진정성을 증명하는 표지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에서 ‘그대’는 실체가 없는 즉 그 자체의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나’의 사랑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다. 결국 연시에 나타나는 대상에의 몰입과 자기망각은 사실상 가장 강력한 자기 몰입과 자기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고정희는 연시의 자기부정적인 사랑의 방식 대신 ‘나’와 사랑하는 대상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길을 택한다. ‘나’와 ‘그대’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고유한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11)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이정하, 「사랑의 이율배반」), “모자랄 것 없는 그대 곁에서/너무도 작아보이는 나이기에”(원태연, 「때로는 그대가」) 등에서 나타나는 자기부정적인 진술들이 그 예이다. 이것은 대중가요인 김수희의 「애모」의 가사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와 동일한 화법으로서, 자기를 비하함으로써 상대방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더할 수 없이 크고 소중한 것임을 나타내는 네가티브한 진술 방식이다.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합리화나 현실 도피와는 다르다. 현실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대’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사랑하는 관계에서조차 어쩔 수 없는 고유한 타자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 독자적인 외로움과 추위를 마주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나는 처절합니다  
되돌아나가기엔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앞으로 나가기엔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그대 땅에 뿌려놓았습니다

막막궁산 같은 저 어둠 어디쯤서  
내 뿌린 씨앗들이 꽃피게 될런지요  
간담이 서늘한 저 외롭 어디쯤서  
부드러운 봄바람 나부끼게 될런지요

기우는 달님이 집 앞까지 따라와  
안심하라, 안심하라, 쓰다듬는 밤  
열쇠를 끄르며 나는 웃고 맙니다  
눈물로 녹지 않을 설화는 없다!!  
불로 녹지 않을 추위는 없다!!

- 「다시 왼손가락으로 쓰는 편지」 부분

‘나’는 그대가 지닌 ‘독자적인 외로움과 추위’ 앞에서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그대의 외로움과 추위는 독자적인 것이어서 오직 그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대의 고독 앞에서 ‘나’는 나의 사랑이 봄바람처럼 조금이나마 그대를 위로할 수 있기를 기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 연에서 이 안타까움을 스스로 극복해낸다. ‘안심

하라, 안심하라'고 쓰다듬는 것은 달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이다. '안심하라'에는 그대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 함축되어 있다. 화자가 다시 웃게 되는 것은 그대가 '눈물'과 '불'을 다해서 지금의 외로움과 추위를 끝내 극복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이란 단독자끼리의 대등한 만남이며 고유한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타자를 자기 안으로 흡수하여 동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로 통합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다름, 절대적인 타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레비나스는 동일자어로 환원 불가능한 타자성·이질성·타자-규범을 지닌 외재적인 존재를 말한다. 타자가 동일자 안으로 내포될 수 없는 이유는 타자는 나와 절대적 다름, 무한성의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자아와 타자의 관계는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거나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타자의 외재성을 자아 안으로 동화하거나 통합하는 관계 또는 표상의 관계가 아니라 타자의 절대적인 다름인 타자성을 보존하는 관계이다.<sup>13)</sup> 인간 간의 진정한 연합 또는 함께 함은 종합의 합이 아니라 마주보면서 함께 하는 것이다. 고정희의 시에서 대상에 대한 기다림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시는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는 시이다.

해거름녘 쓸쓸한 사람들과 흐르던  
따뜻한 강물이 내게로 왔네  
봄 눈 파릇파릇한 숲길을 지나  
아득한 강물이 내게로 왔네

---

12) 김연숙, 『타자윤리학』, 인간사랑, 2001, pp.95~96.

13) 김연숙, 위의 책 p.101.

이십 도의 따뜻하고 해맑은 강물과  
이십 도의 서늘하고 아득한 강물이  
서로 겹쳐 흐르며 온누리 껴안으며  
삼라의 뜻을 돌아 내게로 왔네

(.....)

사십 도의 따뜻하고 드맑은 강물 위에  
열두 대의 가야금소리 깃들고  
사십 도의 서늘하고 아득한 강물 위에  
스물네 대의 바라춤이 실렸네  
그 위에 우주의 동행이 겹쳤네

- 「따뜻한 동행」 부분

‘나’와 당신의 만남은 성질이 정반대인 두 강물이 만나는 것과 같다. 이 시에서 ‘나’가 ‘강물’로 표현된 당신과의 만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의 의미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자아중심적인 ‘나’의 사랑은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 신열 등으로 묘사된다. 활활 타올라 자신을 태우고 어쩌면 당신까지 태울 지 모르는 사랑.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정이 파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나’와 당신의 사랑은 이십 도의 사랑을 합쳐서 사십 도를 만들어내는, 그러면서도 원래의 자신의 성질을 잃지 않는 사랑이다. 이십 도와 이십 도를 합쳐서 만들어진 사십 도의 강물은 따뜻하고 드맑으면서 동시에 서늘하고 아득한 것이다. ‘나’와 당신 모두 단독자로서의 고유성을 잃지 않은 채 상대방과 겹쳐지며 더 뜨겁고 넓은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타자성에 대한 상호 인정이야말로 서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더 큰 사랑으로 연결되는 진정한 사랑의 조건인 것이다.

이 깨달음에 도달하면서 사랑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은 승화되고,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사랑은 보다 보편적인 “더 큰 사랑의 광야”로 열리게 된다. “더 큰 사랑의 광야”는 개인 간의 성숙한 사랑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와의 공감과 연대, 자연 만물과의 공존 공생, 여성주의 연대 등 다양



한 함의를 지닌다. ‘사랑’의 성격 또한 주제에 따라 다양화되고 심화된다. 결국 고정희의 연시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을 다스리고 자신이 꿈꿔온 사회적 연대를 타자성의 승인이라는 방식으로 체화해가는 중요한 실험적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 4. 맺는말

『아름다운 사람 하나』에 실려 있는 시들은 의도적으로 연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작된 시들은 원래의 시가 가진 특정한 사회적 사건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간접화함으로써 시의 내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분량을 줄이고 일정한 형식과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의 의미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하게 한다.

내용상으로 볼 때 이 시집은 개인적인 사랑에서 출발해서 더 큰 사랑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당신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갈등하는 ‘나’와 무정하고 무심한 당신의 관계는 연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랑의 구도이다. 이 부분에서 독자는 화자의 비극에 공감하며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한다.

그러나 고정희의 연시는 단순히 사랑의 비극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온전한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것은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나’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유한 타자성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랑’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자연과의 공생, 사회적 연대 등 좀더 넓은 차원으로 확산되어간다.

이런 면에서 고정희의 연시는 그녀의 이념적 지향이 발전되고 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형상화한 시편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시집에 재수록된 시와 원래 발표된 시집을 비교하여 표로 만들면 아래와 같다.

| 『아름다운 사람 하나』의 제목      | 원래 발표된 제목                      | 발표 시집   | 비고    |
|-----------------------|--------------------------------|---------|-------|
| 사랑법 첫째                | 사랑법 첫째                         | 이시대의 아벨 |       |
| 관계                    | 관계                             | 눈물꽃     |       |
| 시인                    | 시인                             | 눈물꽃     |       |
| 묵상                    | 묵상                             | 눈물꽃     |       |
| 프라하의 봄 - 85년의 C형을 묵상함 | 프라하의 봄 7 - C형을 묵상함             | 눈물꽃     |       |
| 그대의 시간                | 땅의 사람들 5 - 떠도는 자유에게            | 지리산의 봄  | 제목 변경 |
| 봄비                    | 땅의 사람들 6 - 봄비                  | 지리산의 봄  |       |
| 지상의 양식                | 땅의 사람들 7 -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 지리산의 봄  | 제목 변경 |
| 사랑                    | 땅의 사람들 9 - 사랑                  | 지리산의 봄  |       |
| 지리산의 봄 - 뱀사골에서 쓴 편지   | 지리산의 봄 1 - 뱀사골에서 쓴 편지          | 지리산의 봄  |       |
| 그대 음성                 | 천둥벌거숭이 노래 2                    | 지리산의 봄  | 제목 변경 |
| 이별노래                  | 천둥벌거숭이노래 6                     | 지리산의 봄  | 제목 변경 |
| 부재                    | 부재                             | 지리산의 봄  |       |
| 강물                    | 강물 - 편지1                       | 지리산의 봄  |       |
| 편지                    | 이별 - 편지3                       | 지리산의 봄  |       |
| 소외                    | 소외 - 편지4                       | 지리산의 봄  |       |
| 고백                    | 고백 - 편지6                       | 지리산의 봄  |       |
| 오늘같은 날                | 오늘같은날 - 편지 7                   | 지리산의 봄  |       |
|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 편지9          | 지리산의 봄  | 개 작   |
|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 네가 그리우면 나는 울었다 - 편지 10         | 지리산의 봄  | 개 작   |

## 기본자료

- 고정희,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평민사, 1976  
고정희, 『실락원 기행』, 인문당, 1981  
고정희, 『초혼제』, 창작과비평사, 1983  
고정희,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고정희,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고정희, 『지리산의 봄』, 문학과지성사, 1987  
고정희,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창작과비평사, 1989  
고정희, 『광주의 눈물비』, 동아출판사, 1990  
고정희, 『여성해방출사표』, 동광출판사, 1990  
고정희, 『아름다운 사람 하나』, 들꽃세상, 1990

## 참고자료

- 김연숙, 『타자윤리학』, 인간사랑, 2001  
김영혜, 「고독과 사랑, 해방에의 절규」, 『문예중앙』, 1991 가을호  
박혜경, 「연시와 통속성의 문제」, 『한길문학』 8, 1991.3  
서석화, 「고정희 연시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논문, 2003  
이경희, 「고정희 연시 연구」, 『돈암어문학』 20, 2008  
이명규, 「고정희 시 연구」, 명지대 교육대학원 논문, 2000  
정효구, 「고정희론 - 살림의 시, 불의 상상력」, 『현대시학』, 1991.10

## 〈Abstract〉

# A Study on the Composition Method and Meaning of Goh Jung Hee's Love Poems

Mun, Hye-Won  
(Ajou University)

*A Beautiful Person* was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by Goh Jung Hee. It was published by Deulgotsesang in 1990, and the main theme was 'love' and she labelled it as 'love poems'. She recollected and recomposed her published poems in this collection.

She composed her poems in several ways. Some of them were decomposed by verses and sometimes the subtitles became the main title or the title changed completely. There were also changes in the content and volume. Some of the personal experiences were omitted from the poems, making it more general. The length was shortened and some of the phrases were repeated so that the reader could memorize it easily. These changes enabled the poems to be more popular and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From the viewpoint of content, this collection shows the progression of love from personal to a broader love. In this collection, relation of 'I' and 'you' has a certain stereotype, where 'I' have the endless love towards 'you', who is heartless and apathetic. This is where readers can sympathize with the lover's tragedy, and heal their pain through the process. The method of confession also draws the readers to sympathize.

Love poems of Goh Jung Hee show true love as well as overwhelming of

confliction and pain, not by immersing oneself in the other but by admitting the independence and otherness. Through this process, ‘love’ progresses to higher fields such as symbiosis with nature and solidarity of society.

Love poems of Goh Jung Hee were the poems that showed not only the process of overwhelming complication, but also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poet's ideological aim, and it was expressed by its theme, ‘love’.

**Key words :** Goh Jung Hee, love poems, generalization, sympathy, accessibility, otherness

|  |
|--|
| 논문접수일 : 7.3 / 심사기간 : 7.20~8.5 / 게재확정일 : 8.10 |
|--|